

식민시대 볼리비아 사회와 노동체계의 특징*

김달관**

서울대학교

김달관(2013), 식민시대 볼리비아 사회와 노동체계의 특징.

초 록 1492년부터 신대륙에서 토지의 전유, 노동착취, 국제관계, 지식과 주체성 등을 통해 제국의 식민적 권력 매트릭스가 구축되었고, 기독교 복음화, 문명화, 근대화, 세계화 등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면서 제국은 그들의 지배를 유지·확대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스페인의 강제노동 제도가 볼리비아 식민시대의 노동체계에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그리고 원주민이 어떻게 그러한 상황에 대응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강제노동 방식으로서 엔꼬미엔다와 미따(Mita)를 중심으로 포토시, 오루로(Oruro), 꼬차밤바, 벨라야빠스빠야(Pilaya y Paspaya) 지역의 사례에서 노동구성과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제2장에서는 식민시대 볼리비아 사회의 특징으로서 엔꼬미엔다와 미따를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식민시대 볼리비아 노동체계의 특징을 분석한다. 제4장은 결론부분으로서 볼리비아 식민시대의 노동체계의 특징과 사회의 함의를 논의하고자 한다.

핵심어 볼리비아, 엔꼬미엔다, 미따, 레빠르띠미엔도, 포토시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8-362-B00015).

** 서울대 라틴아메리카연구소 HK연구교수. 본 논문 위해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심사위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I. 서론

1492년부터 신대륙에서 토지의 전유, 노동착취, 지식과 주체성, 국제관계 등을 통해 제국의 식민적 권력 매트릭스가 구축되었고, 기독교 복음화, 문명화, 근대화, 세계화 등을 통해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면서 제국은 그들의 지배를 유지·확대했다. 그러나 식민적 권력 매트릭스는 인종차별주의와 식민지 원주민을 열등하고 부족한 인간으로 평가한 인식론적 담론과 관련이 있다. 신대륙 발견·정복이후 스페인은 ‘구원’(Salvación)이라는 구실로 대규모의 원주민 토지 전유와 원주민에 대한 착취를 시작했다. 이후에도 복음, 문명, 발전 등의 언어로 위장하여 통제, 지배, 착취를 강화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신대륙 정복 이후 스페인의 식민지를 “두 개의 공화국”(Dos Repúblicas)이라 했는데, 하나는 “스페인공화국”(República de Españoles)이었고, 다른 하나는 “원주민공화국”(República de Indios)이었다.¹⁾

스페인은 정복자로서 지배와 통제를 강제했고 원주민은 피정복자로서 지배와 강제에 적응해야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스페인은 복음과 문명을 주장했고 광범위한 범위에서 식민성의 논리를 적용했다.²⁾ 스페인의 영광은 원주민의 피와 땀의 결과였다. 이처럼 유럽의 근대성은 세계의 헤게모니를 향해 출발하는 역사적 과정에 붙여진 이름이었고 근대성의 어두운 이면이 식민성이었다. 원주민의 고통과 슬픔 없이 스페인의 영광은 불가능했다. 신대륙의 식민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히 스페인공화국과 원주민공화국이 치열하게 갈등하는 지

1) República de Españoles와 República de Indios에서 República를 직역하면 공화국이라는 뜻이지만, 당시에는 공화국이 존재하지 않았고, 공동체(Comunidad)라는 의미가 보다 적절하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공화국이라는 표현이 당시의 상황을 현대인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후세의 연구자들이 은유적 비유로 표현한 것으로 이해되고, 논문 후반부에서 Ayllu를 원주민공동체로 표기하고 있어서 오해의 여지를 피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República를 공화국으로 표기하지만, 당시에는 공동체라는 의미가 보다 적절하다.

2) 식민성의 논리는 ①경제적 영역: 토지의 전유, 노동력의 착취, 재정의 통제 ②정치적 영역: 권위의 통제 ③시민적 영역: 젠더와 성의 통제 ④인식적이고 주체적·개인적 영역: 지식과 주체성의 통제 등이다(미놀로 2010, 49).

점으로 자본주의의 이해가 필요하다. 자본주의는 근대성의 개념과 근대성의 어두운 이면인 식민성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적인 공간이다. 왜냐하면 자본의 자본주의로 전환으로 인해 인간 생명 경시와 인간의 소모품화가 발생했기 때문이다(미놀로 2010, 24, 75). 즉 스페인공화국과 원주민공화국이 만나는 갈등 지점에서 스페인 왕실은 강제노동 조직을 창설했는데, 그것이 엔꼬미엔다(Encomienda)와 레빠르띠미엔토(Repatriamiento)였다.³⁾ 엔꼬미엔다와 레빠르띠미엔토를 중심으로 두 개의 공화국이 갈등하면서, 경제적으로는 이윤의 확대재생산 과정(원시적 축적 또는 시원적 축적)이, 사회문화적으로는 혼종성(Hibridad)⁴⁾이, 인식론적으로는 경계사유(Pensamiento Fronterizo)가 부상했다.

신대륙 정복·식민의 3세기 동안 금과 은은 스페인의 위상에 중요한 요소였다. 영국과 네덜란드에서 발생한 산업혁명은 스페인이 신대륙 식민지에서 가져간 자원에 의해 촉발되었다. 이에 신대륙의 역사는 원주민과 자연자원에 대한 착취의 과정이었다. 노예화 된 원주민은 광산과 아시엔다에서 비인간적 조건 하에서 강제노동으로 사망했다.⁵⁾ 신대륙 원주민에게 스페인의 발견과 정복의 역사는 크나큰 재앙이자 고통이었다. 스페인인과 함께 들어온 새로운 질병, 잔인한 착취, 이에 따른 원주민 사회의 해체로 인해, 번창하고 발전할 수 있었던 멕시코의 아스테카 문명과 페루의 잉카 문명이 파괴되었다(Keen 2009,

-
- 3) 엔꼬미엔다는 1521년 ‘부르고스 법’(Leyes de Burgos)에 의해 정식으로 창설되었다. 부르고스 법에는 스페인인과 원주민 사이의 노동관계에 대한 통제조치가 있다(Laura 2008, 13). 그러나 엔꼬미엔다는 엔꼬미엔다 주체인 엔꼬멘테로(Encomendero)의 귀족화 경향에 대한 우려로 인해 1700년경에 실질적으로 폐지되었다. 레빠르띠미엔토는 1513년에 창설되었고, 페루의 레파르트미엔토인 미타(Mita)는 1573년에 창설되었으며, 1812년에 폐지되었다.
- 4) 노만(Norman Whitten)은 hibridad과 mestizaje를 다음과 같이 구분했다. hibridad(혼종성)은 문명과 야만의 혼합을 강조하고, mestizaje는 ‘인종’간 혼합과 ‘문화’간 혼합을 강조한다. 이에 노만에 따르면 백인+원주민=hibridad, 백인+흑인=hibridad이지만, 원주민+흑인=mestizaje(mixed)라는 것이다(Whitten 2007, 360).
- 5) 1530-1722년 동안 원주민 인구는 75% 감소했다. 매년 광산노동에서 5만 명이 사망했고 150년 동안 약 8백만 명이 사망했다(Acosta 1959, 79; Peñaloza 1981, 330; Zulawski 1987, 417-418).

57).

현재의 볼리비아에 해당하는 알토페루(Alto Perú)는 식민시대에 강제노동제도 도입으로 인해 많은 변화가 발생했다. 식민시대 생산관계의 변화와 소유권에 대한 안데스 지역에서 개념의 변화는 스페인 식민의 결과이자 스페인의 중상주의적 기획의 핵심적인 요소였다. 이에 원주민 노동체계 연구는 스페인 공화국과 원주민공화국 사이에 발생하는 식민성의 고유한 사회갈등 과정을 보여 준다.⁶⁾ 즉 노동체계는 당시의 경제제도와 사회제도로써 거시적 구조와 개인이 만나는 교차지점으로서 스페인공화국의 지배와 원주민공화국의 저항과 적응의 장소이자, 원시적 축적, 혼종성, 경계사유의 미시적 공간이었다. 스페인공화국의 일부분으로서 식민사회의 삶, 노동의 성격, 노동의 의미는 스페인인에게는 명확했지만, 스페인의 의도를 원주민 사회에 단순히 강제할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스페인공화국과 원주민공화국 사이에 복잡한 상호작용과 저항에 따라 노동형태와 생산관계가 변모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균등한 경쟁의 결과로서 어떤 것은 스페인적 특징이 보다 많이 나타났고, 다른 어떤 것은 안데스적 특징이 보다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은 스페인에 의해 통제된 식민적 혼종의 방식이었으나, 스페인의 통제를 넘어서는 상황에 의해 형성되었다(Zulawski 1995, 4).

본 연구는 ‘라틴아메리카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스페인의 신대륙 정복은 대서양 상권의 등장이며 근대/식민 세계체제의 형성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근대성의 출발은 18세기 계몽주의가 아니라 1492년 스페인이 신대륙을 정복하고 대서양을 장악한 시점으로 이해한다. 식민주의와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발전은 근대성을 구성하는 필수적 요소이며, 이것은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발전이 식민주의로 인해 가능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근대성은 유럽 내적 현상이 아니라 이미 세계가 관련된 현상이며, 물질적인 측면에서 유럽의 근대성은 신대륙의 정복을 통해 가능했다. 식민시기에 형성된 권력의 식민성은 존재와 지

6) 여러 저자가 “스페인공화국”(República de Españoles)과 “원주민공화국”(República de Indios)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식에 이르기까지 라틴아메리카 삶의 모든 면에서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라틴아메리카 형성’은 정치사회적 관점에서 ①근대성과 식민성: 대서양 상권의 등장과 식민지 사회의 형성 ②중상주의와 식민 질서 ③질서, 진보, 혁명: 근대적 국민국가의 건설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근대성과 식민성(대서양 상권의 등장과 식민지 사회의 형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①신대륙 정복 ②근대적/식민적 세계체제의 탄생 ③정복에서 식민지로: 식민지 사회와 인구의 변화 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근대적/식민적 세계체제의 탄생이라는 관점에서 식민시대 경제제도인 엔코미엔다와 미따를 통해 식민사회와 노동체제의 특징을 살펴보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정복자로서 스페인의 강제노동 제도가 볼리비아 식민시대의 노동체계에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피정복자의 관점에서 원주민이 어떻게 그러한 상황에 대응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 노동체제란 강제노동의무 여부, 지역의 주요 산업, 노동자 구성, 주요 노동형태, 정부지원, 강제노동자 제공 여부 등을 의미한다. 즉 본 연구의 목적은 식민시대 볼리비아의 주요 산업과 지역에 따라 자연적 요소, 정책적 요소, 역사적 요소가 어떻게 노동체계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자연적 요소는 지형적, 지질적 특징으로서 은광의 존재 여부, 토지의 비옥도, 주요 도시에 접근성, 위치 등이다. 정책적 요소는 정부가 강제 노동자를 제공하는지 여부, 미따면제 여부, 신용제공, 수은제공 여부 등이다. 역사적 요소는 부왕령 경계선 인근지역에 정복되지 않은 원주민이 있는지 여부, 강력한 귀족 등장 가능성, 농민반란 여부 등이다. 본 연구는 특히 강제노동 방식이 포토시(Potosí), 오루로(Oruro), 꼬차밤바(Cochabamba), 뿔라야빠스빠야(Pilaya y Paspaya) 지역의 사례에서 어떻게 노동체계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포토시는 안데스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은광이 있는 곳이다. 따라서 스페인 왕실이 안데스 지역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이다. 오루로는 알토페루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은광이었다. 꼬차밤바 지역은 알토페루에서 가장 중요한 곡창지대로서 포토시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포토시에 필요한 식량과 필수품을 제공

했던 지역이다. 벨라아빠스빠야 지역은 농업지역이지만 꼬차밤바 보다 중요성이 떨어지는 곳이고, 주로 포토시에 포도주를 제공했던 지역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광산지역 2곳과 중요한 농업지역 1곳 및 평범한 농업지역 1곳에서 노동체계의 특징을 비교분석 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 제2장에서는 식민시대 볼리비아 사회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강제노동제도서 엔꼬미엔다와 미따 그리고 노동자 구성을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식민시대 볼리비아 노동체계의 특징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광산지역 2곳과 농업지역 2곳을 사례로 연구하고자 한다. 제4장은 결론부분으로서 볼리비아 식민시대의 노동체계의 특징과 사회의 함의를 논의하고자 한다.

II. 식민시대 볼리비아 사회

1. 식민시대 강제노동 제도

1) 엔꼬미엔다(Encomienda)

스페인인 신대륙의 원주민 노동력을 통제하기 위해 여러 가지 강제노동 제도를 도입했다. 특히 발견과 동시에 크리스토폴 콜론(Cristóbal Colón)은 엔꼬미엔다라는 원주민 강제노동 조직을 도입했다. 엔꼬미엔다는 노예제와 비교할 때, 엔꼬미엔다가 상대적으로 노예제보다 수익이 적은 노동조직 방식인데, 스페인 왕실은 왜 노예제 대신에 엔꼬미엔다 제도를 도입했을까? 그것은 엔꼬미엔다가 노예제보다 스페인 왕실의 위협을 축소시켰기 때문이었다.⁷⁾ 게다가 엔꼬미엔다는 다른 노동조직 형태가 갖지 못한 장점이 있었는데 첫째, 스페인

7) 엔꼬미엔다와 노예제를 비교했을 때 엔꼬미엔다가 상대적으로 수익이 떨어졌는데, 그것은 첫째, 엔꼬미엔다의 상속제한으로 인해 유산을 물려줄 동기가 부재했기 때문에 원주민 노동력의 빠른 마모를 유발시켰다. 이것은 높은 비율로 원주민을 감소시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원주민의 노동성고가 축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둘째, 원주민 노동의 거래, 재배치 제한은 제한된 지역에서 원주민 노동력 사용을 강제하여, 멕시코와 페루 은광지역에서처럼 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없었다. 셋째, 다른 스페인인과 거래와 임대불능은 높은 평균비용으로 인해 규모의 경제를 축소시켰다. 엔꼬멘테로는 원주민 노동력 규모를 조정하여 최적화 할 수 없었다(Yeager 1995, 843).

왕실은 저비용으로 스페인 제국을 방어하며 확대할 수 있었고 둘째, 기독교를 전파하기를 원했으며 셋째, 식민지로부터 부(富)를 형성하려 했기 때문이다. 이에 스페인 왕실은 노예제보다 엔코미엔다를 선호했다. 왜냐하면 엔코미엔다의 상속, 거래, 재배치 제한은 스페인 왕실의 안위를 증가시켰고 이념적 필요를 보다 잘 충족시켰기 때문이다(Yeager 1995, 846-857).⁸⁾

엔코미엔다는 신대륙 발견과 정복의 성과에 따라 정복자, 스페인 왕실 공로자, 도시 창설자 등에게 양도된 권리로서 광대한 토지와 그 토지에 속한 원주민을 수여했다(Laura 2001, 24). 그것은 원주민의 보호와 기독교 교육을 실행하라는 의미에서 스페인 왕실이 엔코미엔다 권리의 주체인 엔토멘데로(Encomendero)에게 원주민을 위임(Encomienda)한 것이고, 이에 엔코멘데로는 원주민의 보호와 기독교 교육에 대한 대가로 농업, 목축업, 광업 등의 분야에서 원주민의 노동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초기에 엔코미엔다는 1세대에 제한된 권리였지만, 이후에 엔코멘데로와 그의 후손이 2-3세대에 걸친 권리를 요구했다(Acosta 1959, 161).

아직까지 엔코미엔다 개념에 대하여 확실히 규정된 것이 없다. 그러나 엔코미엔다와 관련된 중요한 쟁점을 정리하자면, 첫째, 엔코미엔다는 토지에 관한

8) 상속제한은 3가지 방식으로 스페인 왕실의 통치를 강화했다. 첫째, 상속제한은 한 가족이 획득할 수 있는 부를 심각하게 축소시켰다. 2세대에 걸쳐 재산을 공정하게 모은 엔코멘데로도 원주민 노동 통제권이 3세대에서 상실되었다. 둘째, 스페인 왕실은 엔코미엔다를 보다 쉽게 몰수할 수 있었다. 정복자에게 주어진 재산권으로서 엔코미엔다에 항의할 수 있는 법적장치가 스페인 왕실에 있었다. 셋째, 몰수 위협을 통해 엔코멘데로 보다 우월한 협상력을 스페인 왕실에 제공했다. 스페인 왕실은 비협조적인 엔코멘데로의 엔코미엔다를 자주 몰수했다. 이처럼 엔코미엔다 몰수는 이익 극대화 방식이 아니라 스페인 왕실의 안위를 확보하려는 방식이었다. 거래제한은 이사벨 여왕이 원주민 노예 논쟁과 관련하여 신학자의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1503년 신대륙의 스페인 관료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원주민은 자유민이지만 노예는 아니라고 규정을 내렸다. 그러나 원주민이 건물을 건설하고, 광산에서 광석을 채굴하며, 밭을 경작하고, 식량을 생산하는데 원주민 노동력을 강제하라고 명령했다. 강제노동자의 거래제한은 원주민 강제노동자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은 스페인인에게 허용하면서, 원주민이 노예가 되는 것은 피하도록 했다. 이에 갈수록 원주민에 대한 식민당국의 억압과 착취가 증가했고, 다른 한편으로 그것을 피하려는 원주민의 노력이 증가했다.

권리인가? 원주민 노동력에 관한 권리인가? 아니면 토지와 원주민 노동력에 관한 권리인가? 등이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원주민 노동력에 대한 권리라는 주장이 우세하다. 둘째, 엔꼬미엔다는 몇 세대에 걸친 권리인가? 이다. 지역에 따라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에 걸친 엔꼬미엔다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2세대에 걸친 권리라는 주장이 우세하다. 셋째, 엔꼬미엔다에서 2세대 동안에 권리라면, 그 2세대는 스페인인이 기준인가? 아니면 원주민이 기준인가? 이다. 대체적으로 스페인 지주를 기준으로 2세대라는 주장이 우세하다. 그러나 엔꼬미엔다는 지역과 시대에 따라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실천되었다(Peñalosa 1981, 143-146). 다른 한편, 엔꼬멘테로의 권리를 가질 수 없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들은 부왕, 부왕의 행정관료, 수도원, 종교단체, 지방관료, 여성, 외국인 등이다(Centellas 2011, 34).

기본적으로 엔꼬미엔다는 지역과 시대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발전했지만, 멕시코의 경우 1520년경 엔꼬미엔다에 새로운 요소 2개가 첨가되었다. 하나는 일부 세금을 첨가했다. 기존의 엔꼬미엔다는 노동력만 제공하면 되었지만 멕시코에서는 노동력+세금으로 변경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멕시코 원주민의 전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멕시코에서는 스페인 정복 이전에 정복당했을 때, 조공을 제공하던 전통을 갖고 있었고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재화를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엔꼬멘테로에게 군사적 의무가 추가되었다. 이에 지방정부가 요청할 때, 그 지역의 엔꼬멘테로는 자신의 비용으로 무기, 말 등을 소유하고 있어야 했고, 전쟁 시의 비용도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했다. 이때부터 일정시기 동안 엔꼬멘테로는 군사적 조직의 역할을 했다. 또한 새로운 영토에 원주민을 강제하기 위해 엔꼬멘테로는 엔꼬미엔다가 있는 지역의 도시에 거주하는 의무를 추가했다. 즉 엔꼬멘테로는 그의 엔꼬미엔다가 있는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엔꼬미엔다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에 집을 소유하고 그곳에서 거주해야만 했다.⁹⁾ 엔꼬멘테로는 특별한 허가 없

9) 엔꼬멘테로는 아시엔다가 아니라 인접한 ‘도시’에 살게 한 것은 엔꼬멘테로의 원주민에 대한 영향력의 남용을 피하려는 목적 때문이었다.

<표 1> 1550-1775년 동안의 스페인식민지의 엔꼬미엔다 수

구분	1550	1575	1600	1625	1650	1675	1700	1725	1750	1775
멕시코	540	350	150	0	0	0	0	0	0	0
페루	340	470	420	270	200	150	110	100	0	0
유카탄	90	120	100	110	130	120	110	100	50	-
콜롬비아	80	130	130	110	100	100	0	0	0	-
푸꾸맘	30	160	190	180	170	160	155	100	50	-
니카라과	100	80	50	45	45	30	25	0	0	-
베네수엘라	30	50	50	70	90	75	50	20	0	-
온두라스	50	80	50	40	20	10	5	0	0	-
칠레	-	-	-	-	-	-	90	80	50	-
전체	1260	1440	1140	825	755	645	545	400	150	-

자료: Yeager(1995, 848)

이 그 지역을 떠날 수 없었다(Laura 2008, 14-15).

신대륙의 정복과 식민이 어느 정도 진척되면서 스페인 왕실은 엔꼬미엔다 제도에 대해서 우려하기 시작했다. 첫째, 잠재적인 귀족 계급으로서 엔꼬멘테로가 스페인의 권위에 저항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기 시작했다. 식민지 발전에서 엔꼬멘테로의 기여를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원주민은 정치적, 사법적으로 식민당국에 의해 직접적으로 통치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졌다. 이에 엔꼬미엔다는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초까지 쇠락하게 된다. 둘째, 유럽인구가 증가하고 있을 때, 원주민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면서 엔꼬미엔다 제도를 축소시켰다(Zulawski 1995, 46).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신대륙에서 엔꼬미엔다는 전반적으로 1600년에 감소하기 시작하여 1625년에 급격히 감소했고, 1750년이 되면 신대륙의 중요한 지역에서 의미를 상실했다. 멕시코의 경우 1625년에, 페루의 경우 1750년에 실질적으로 엔꼬미엔다가 폐지되었다.

2) 레빠르띠미엔토(Repatriamiento)

엔꼬미엔다와 비슷하게 원주민 노동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강제노동 제도로서 레빠르띠미엔토(Repatriamiento)가 있다. 레빠르띠미엔토도 엔꼬미엔다처럼 크리스토팔 콜론이 창설한 제도로서, 처음에 14세 이상의 모든 원주민

은 금, 은, 면화, 농산물 등을 세금으로 내도록 했다. 그러나 나중에 세금으로 들어온 것이 부족하다고 평가되면서 개인적 노동을 제공하도록 했다. 페루에서도 동일한 기준(Ley de conscripción vial obligatoria)에 의해 1521년에 레빠르띠미엔토가 시행되었다(Flores 1967, 93). 레빠르띠미엔토는 강제노동으로서 특정한 수의 노동력을 배분하는 것이다. 즉 레빠르띠미엔토는 가사, 수공업, 광업, 농업, 운송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원주민의 노동력을 사용하기 위해 스페인 당국이 임의적으로 강제노동을 배분하는 제도였다. 따라서 레빠르띠미엔토는 정복자가 자신의 경제적 이익 실현을 위해 피정복자인 원주민에게 팍을 강제하는 제도였다(Adolfo 1975, 205). 레빠르띠미엔토와 엔꼬미엔다의 핵심적 차이는 레빠르띠미엔토가 원주민 수와 시간을 제한하여 식민당국이 강제노동을 배분할 수 있는 권리로서 원주민을 배분받는 스페인인 입장에서 ‘임의적’ 권리였다면, 엔꼬미엔다는 상속권이 있는 엔꼬멘데로가 사법적, 공식적 제도에 의해 보호되며, 강제노동을 배분받을 수 있는 ‘보다 안정된’ 권리였다. 즉 레빠르띠미엔토는 시간과 강제노동자 숫자가 제한적인 반면, 엔꼬미엔다는 상속권이 있고 규정된 강제노동을 안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서 엔꼬멘데로의 위상이 보다 높았다. 엔꼬미엔다는 식민초기에 행정체계가 부족하고 식민체제가 완전하게 정착되지 못했을 때, 지방행정 당국으로서 식민체제 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식민체제가 안정되면서 엔꼬멘데로가 귀족화 되는 경향을 스페인 왕실이 우려했고, 이에 엔꼬미엔다의 영향력을 축소시키기 시작했다. 엔꼬미엔다의 영향력을 축소시키면서 스페인 왕실은 보다 통제가 가능한 강제노동 배분 제도로서 레빠르띠미엔토를 활성화 했다. 이처럼 스페인은 엔꼬미엔다와 레빠르띠미엔토에 기초해서 식민시대의 새로운 사회구조를 형성시켰다.

레빠르띠미엔토와 비슷한 상품 레빠르띠미엔토(Repatriamiento de Mercancías)도 있었다. 상품 레빠르띠미엔토는 강제로 원주민에게 물품을 배분하여 판매하는 일종의 강매이다. 이것은 자유노동자에게 과도한 착취가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품강매를 통해 인위적으로 시장을 만들어 자유노동자로 하여금

보다 낮은 임금을 받아들이도록 했다. 상품 레빠르띠미엔토에서 꼬레히도르(Corregidor)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지역의 관료로서 꼬레히도르는 식민당국으로부터 관직을 돈을 주고 샀다. 꼬레히도르는 낮은 봉급을 받았기 때문에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그의 관리지역 안에 있는 원주민에게 매우 비싼 가격(도매가격의 약 2배)에 물품을 강제로 배분했다. 꼬레히도르가 강매하는 물품은 주로 리마에서 상인들로부터 신용으로 구매하는 것이었다. 이에 상품 레빠르띠미엔토로 인해 리마에 있는 상인과 식민당국뿐만 아니라, 광산주와 지주들도 이득을 보았다. 강매하는 대부분의 품목은 원주민이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거나, 과도하게 많은 양을 강제로 배분했다. 이러한 물품은 일반적으로 다른 곳에서 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Zulawski 1995, 106). 게다가 부르봉 개혁의 일환으로 꼬레히도르 직위가 7년에서 5년으로 축소되면서 상황은 보다 악화되었다. 이에 상품 레빠르띠미엔토는 원주민에게 매우 부담이었고, 이것은 1780년대 원주민 봉기의 결정적인 동기였다(Peñaloza 1981, 168). 이후 19세기 초 대부분의 스페인 식민지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게 되면서, 스페인의 부르봉개혁은 실패했다. 상품 레빠르띠미엔토는 꼬레히도르뿐만 아니라 광산주도 원주민 노동자에게 현금대신에 빵, 코카 잎, 옷, 옥수수, 밀가루 등의 생필품으로 지불했다. 이것은 원주민의 임금을 축소시키는 전략이면서, 광산주와 광산기업가(Azoguero 정련소 주인)의 사업으로서 현물을 시장가격보다 비싸게 노동자에게 판매함으로써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Gavira 2005, 220-222). 이처럼 광산주와 광산기업가는 광산운영 외에도 농장을 운영하여 농장의 수확물을 원주민에게 비싸게 강매하여 수입을 부가적으로 획득했다.

3) 미따(Mita)

식민시대 페루에서 미따(Mita)는 레빠르띠미엔토 제도 하에서 형성된 제도이다. 페루에서 미따는 상업, 농업, 광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원주민의 개인 노동에 대한 강제적 배분을 의미하고, 페루의 미따는 잉카제국 시대에서 유래한 제도였다(Rene 1945, 155). 식민초기에 전반적인 스페인의 정책은 정복이전

잉카제국과 비슷한 방식으로 식민지를 경영하려 했는데, 그것은 기존사회의 계승이라는 의미에서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했고, 동시에 저항의 위협을 축소시켜 스페인 왕실의 안위를 높이고자 했기 때문이다(Bakewell 1984, 38). 미따는 케추아어로 ‘교대’를 의미하며 잉카제국 시대에 개인적 의무로서 교대로 노동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잉카의 미따는 일반이익을 위해 노동력을 동원하는 강제노동 개념이었고, 자연자원이 풍부하지 않았던 잉카제국은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동력을 대규모로 조직하는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이에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의미를 갖는 분야에서 대규모 노동이 필요한 경우에 미따를 사용했다(Crespo 2010, 79). 잉카의 강제노동 제도로서 미따는 공동체에 기초한 광범위한 경제체제의 일부였고, 화폐적 개념이라기보다는 생산개념에 보다 가까웠다. 미따를 통해 잉카 정부는 국민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했고, 미따의 운영이 폭압적이라기보다는 동정적이었으며(Wiedner 1960, 358), 미따가 의무적인 노동이었지만 원주민에게 강제적이고 불편한 느낌은 주지 않았다(Acosta 1959, 157).

1545년 포토시 은광이 발견되고 1545-1570년경까지 높은 품질의 은광으로 인해 은 생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1570년경이 되면 높은 품질의 은광이 고갈되면서, 갱도를 보다 깊이 파야 했고 은 광석도 보다 많이 채굴해야 했기 때문에 많은 노동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1573년 페루의 부왕인 톨레도(Francisco de Toledo)가 포토시 광산 인근에 있는 16개 주(Provincia)의 200여개 각각의 마을에서 18-50세 사이의 원주민 남성중에서 매년 1/7에 속하는 원주민에게 강제노동을 명했는데 이것이 포토시의 미따였다.¹⁰⁾ 미따의 무가 면제된 14개 주는 알토스 데 아리카(Altos de Arica), 아따까마(Atacama), 까라바야(Carabaya), 꾸스꼬, 라파스, 라레까하(Larecaja), 리페스(Lipez), 미스께(Mizque), 오루로(Oruro), 펠라야빠스빠야(Pilaya y Paspaya), 포토시, 토미나(Tomina), 얀빠라에스(Yamparaez)였다(Abecia 1988, 69). 이에 미따의

10) 미따를 제공해야 하는 16개 주가 어떤 지역인지에 대한 논의는 연구자마다 그리고 다루는 시기 마다 차이가 존재한다.

〈표 2〉 미따를 제공해야 하는 주(Provincia)

구분	Crespo 연구	Tandeter 연구 (1692-1780)	Peñaloza 연구 (1578)	Peñaloza 연구 (1600)	Abecia 연구
1.	Azángaro y Asilo	Azángaro	Azángaro	Azángaro	Azángaro y Asilo
2.	Canes y Canches	Canas y Canchis	Canas	Carangas	Cabana y Cabanilla
3.	Carangas	Carangas	Carangas	Chayanta	Canas
4.	Cavana y Cavanilla	Chayanta	Changras	Chucuito	Carangas
5.	Chayanta	Chichas	Chayanta	Cochabamba	Chayanta
6.	Chichas	Chucuito	Chucuito	Lampa	Chucuito
7.	Cochabamba	Cochabamba	Cochabamba	Omasuyos	Cochabamba
8.	Chucuito	Lampa	Curiaca	Pacajes	Omasuyos
9.	Omasuyos	Omasuyos	Lampa	Paria	Pacajes
10.	Pacajes	Pacajes	Omasuyos	Paucarcolla	Paria
11.	Paria	Paria	Pacajes	Porco	Paucarcolla
12.	Paucarcolla	Paucarcolla	Paria	Potosí	Porco
13.	Porco	Porco	Paucarcolla	Quispicanchis	Quispicanche
14.	Quispicanchis	Quispicanchis	Porco	Sicasica	Sicasica
15.	Sicasica	Sicasica	Quispinchaqui	Tarija	Tarija
16.	Tarija	Tarija	Tarija	Tinta	Tintacnaches

자료: Abecia(1988, 69), Crespo(2010, 106), Peñaloza(1981, 332), Tandeter(1992, 48)

〈표 3〉 포토시에 강제노동자(Mitayo)로 온 원주민 수

연도	총 미따요 수	교대 미따요 수
1573년	13.500	4.500
1583년	13.000	4.453
1588년	13.000	4.453
1618년		4.294
1633년		4.129
1696년		2.761
1780년		2.879

자료: Crespo(2010, 83-84)

강제노동을 수행하는 원주민을 미따요(Mitayo)라고 불렀는데, 일 년에 약 13,500명이 포토시 광산에 징집되었다.

이들은 일 년에 미따를 위해 고향에서 포토시에 가는데 2개월, 돌아오는데 2개월, 광산 4개월, 정련소 2개월을 보내기 때문에 약 10개월 정도의 시간을 보

내야 했다. 미파 강제노동으로 보내는 기간이 얼마인지는 정확하지 않다. 일부는 10개월(광산 4개월+정련소 2개월+오고가는데 4개월)을 주장하고, 다른 일부는 8개월(광산 4개월+오고가는데 4개월)을 주장하며, 또 다른 일부는 8개월(광산 4개월+정련소 2개월+오고가는데 2개월)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7년에 한 번씩 미파 의무를 수행했다. 즉 각 마을에서 매년 성인 남성의 13-16%가 미파 강제노동 의무를 수행해야 했다. 그래서 매년 총 13,500-14,000명 정도의 성인 남성을 포토시로 보냈다. 포토시에서 강제노동 의무를 수행하고 나면 6년 동안 강제노동 의무가 면제되었다(1년 미파의무+6년 휴식=7년마다 한 번씩 미파 의무). 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해 보다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지만, 더 이상 노동공급이 어려웠다. 흑인노예는 4천 미터의 고도와 추위를 견딜 수 없어서 사용될 수 없었다(Brading 1971, 103).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혹독한 노동과 인구감소로 6년에 한 번씩, 5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미파 의무가 증가했다.

미파요가 포토시 광산에 도착하면 약 4,500명씩 3교대로 나눈다. 1교대는 1주일 동안 광산에서 계속해서 일을 하고, 2주일 동안 휴식했다. 즉 1주일 노동+2주일 휴식=3주일로 구성되었다. 한 교대에 속한 미파요는 3주일마다 1주일 노동을 하는 격이었다. 그러나 이것도 원주민이 감소하면서, 2주일 휴식에서 1주일 휴식으로 축소되었고, 나중에는 1주일 동안의 휴식도 폐지되었다. 1주일은 보통 화요일 아침에서 토요일 저녁까지 5일 동안의 보수를 받았다. 월요일에는 오전부터 오후4시까지 광장에 모여서 미파요를 특정인에게 배분하고 일할 곳을 확인하는 등 통합적인 노동을 하지만 월요일은 보수를 지불하지 않았다. 미파요는 1주일 동안 갱도 내에서 숙식을 해결해야 했다. 오직 목요일 정오에만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갱도 밖에서 1시간을 허용했다. 미파요는 갱도 안에서 일반적으로 3인 1조로 구성되었는데, 배낭방식의 가족으로 된 가방에 한 번에 25kg의 은 광석을 운반했고, 광석운반은 하루에 대략적으로 25회 정도 했다(Cole 1985, 24). 따라서 하루 광석 운반 양은 $25\text{kg} \times 25\text{회} = 625\text{kg}$ 즉 하루에 70kg인 성인 9명 정도의 분량을 운반했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갱도가 깊어지게 되었고 이에 운반횟수가 줄어들었다. 이처럼 하루의 노동량(Tarea, Montón)도 시간이 경과하면서 깊은 갱도 속으로 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은 지역과 시대에 따라 달랐다.¹¹⁾

2. 식민시대 볼리비아 사회의 노동자 구성

식민시대 알포페루에서 원주민은 모두 똑같은 상황이 아니라 3종류의 원주민으로 구분할 수 있었는데, 오리히나리오(Originario), 포라스테로(Forastero), 야나꼬나(Yanacona)가 있었다. 노동자 관점에서 원주민을 구분하면 자유노동자인 야나꼬나, 강제노동자인 미타요(Mitayo), 자유노동자인 밍가(Minga) 등 3종류가 있었다. 3종류의 원주민 중에서 오리히나리오의 처지가 상대적으로 가장 좋았다. 이들은 태어난 원주민공동체(Ayllu)에서 토지와 자연자원에 대한 권리를 향유하는 원주민이거나, 1570년대 플레도 부왕이 실행한 정착촌(Reducción)에서 토지와 자연자원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 원주민이었다. 포라스테로는 알포페루에서 일반적으로 미타 의무를 피하기 위해서 고향인 원주민공동체를 떠난 원주민을 의미했다. 고향을 떠나 다른 원주민공동체에 살면 오리히나리오에서 포라스테로가 되는데 포라스테로는 미타 의무에서 면제되었다. 이것은 사회적 조건의 강등을 의미했다. 토지 사용권자로서 오리히나리오 오는 불안정한 상황에 있는 포라스테로 보다 많은 세금을 지불했다(Crespo 2010, 148). 포라스테로는 항상적인 이주자 신분을 피하기 위해 고향에 있는 원주민공동체와 관계를 유지하고자 했다. 포라스테로의 아이들과 손자들은 외부인으로 인식되었고, 가족이 몇 세대 동안 살았다고 하더라도 고향을 떠나 그들이 살고 있는 원주민공동체에서 오리히나리오가 되지 못했다. 즉 토지 사용과 주위의 자연자원 사용에 제한을 받았다. 야나꼬나는 스페인 정복 이전 잉

11) 포토시 미타에 관련된 자료는 Jeffrey A. Cole(1985), *The Potosí Mita, 1573-1700*, Stanford University Press, Enrique Tandeter(1992), *Coacción y Mercado. La minería de la plata en el Potosí colonial, 1692-1826*, Siglo XXI, Madrid, Peter Bakewell(1984), *Miners of the red moutain: Indian labor in Potosí, 1545-1650*, University of New Mexico Press 등이 있다.

카제국시대에 어떠한 원주민공동체에도 속하지 못했던 원주민이나, 또는 잉카의 귀족, 군사지도자, 지방엘리트인 꾸라까(Curaca)에게 개인적으로 하인(노예)의 역할을 했던 원주민이었다. 많은 야나꼬나는 식민시대에 일반적으로 아시엔다에서 일을 했으나 목축업, 수공업, 광업 분야에서도 일을 했다. 1539년 스페인이 지금의 볼리비아를 정복하면서 스페인인의 하인 같은 기능을 수행했으나, 법에 따라 야나꼬나는 이후 자유인이 되었다(Bakewell 1984, 35).

노동자 관점에서 야나꼬나는 잉카시대에 상류층의 하인이나 여러 분야에서 일반 원주민보다 낮은 신분으로 농업, 광업, 수공업에 종사했다. 1545년 포토시의 은광이 발견되면서 잉카 시대에 광산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야나꼬나가 포토시에 모여들기 시작했다. 광산 초기에 야나꼬나는 광산 경험과 기술로 인해 그리고 높은 품질의 은 광석으로 인해 은 생산에 기여했고, 이에 은 생산이 급증했다. 당시 야나꼬나는 스페인인 광산주에게서 광산의 일부를 임대하고 일반 원주민을 고용하여 많은 재산을 모았다. 광산 초기에 야나꼬나는 사업가로서 광산 전문가로서 높은 위상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1570년경이 되면 높은 품질의 은 광석이 고갈되면서 은 생산이 감소하였다. 이에 낮은 품질의 은 광석을 대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수은함금법(아말감 법)이 도입되면서, 야나꼬나의 경험과 기술이 필요 없게 되었고, 이에 광산 전문가이자 사업가에서 자유노동자인 밍가가 되었다.

한편, 은광석의 고갈로 1570년경부터 갱도를 깊이 파야했고 낮은 은 광석의 품질로 인해 이전 보다 많은 은 광석을 채굴해야 했기 때문에 많은 노동자가 필요하게 되었다. 다른 한편, 수은함금법의 도입으로 저 품질의 광석을 대량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고, 1573년 미파제도가 도입되면서 오리히나리오는 강제노동자로서 미파요가 되었다. 그러나 미파의 강제노동이 힘들고 위험하다는 것이 점차 알려졌고, 이에 미파요를 피하려는 시도가 증가하면서 장기적으로 미파요의 수가 감소했다. 야나코나와 비슷한 자유노동자로서 밍가도 미파제도 이후에 출현하게 되었다. 자유노동자로서 밍가는 예전의 광산전문가로서 그리고 사업가로서 야나꼬나가 밍가가 되었고, 미파요도 미파요 휴식 기간에

노동을 하면 밍가가 되었으며, 미따요 의무를 마치고 나면 자유노동자로서 밍가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3개의 경로로 밍가가 출현했다. 따라서 당시에는 자유노동자인 밍가와 강제노동자인 미따요가 동시에 존재하는 노동의 이중구조가 형성되었다.

일반적으로 원주민으로서 포라스떼로와 야나꼬나는 비슷한 삶을 살아갔다. 예를 들면, 광산, 도시, 아시엔다 등의 모든 영역에서 포라스떼로와 야나꼬나는 함께 존재했다. 그러나 이주 유형으로서 포라스떼로와 야나꼬나는 그들의 고향(Ayllu 또는 Reducción)을 떠난 원주민이라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었으나, 포라스떼로는 고향에서 권리와 의무를 유지했지만, 야나꼬나는 그러한 권리와 의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보다 중요한 차이점은 포라스떼로는 원주민공동체에서 외부인으로서 이주자 신분을 강조하면서, 오리히나리오에서 유래하는 권리와 특권을 부정하는 의미였다. 반면 야나꼬나는 일반적으로 아시엔다 지주와 관련되어서 언급되는데, 그것은 야나꼬나의 지속적인 봉건적 연속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었다(Zulawski 1995, 81).

스페인에 의한 강제노동이 확대되면서, 강제노동을 회피하려는 원주민의 노력도 증가했다. 이러한 강제노동을 회피하려는 원주민의 노력으로서 첫 번째 방식은 이주와 노동력 판매였다. 원주민공동체인 고향에 태어나서 원주민공동체의 토지와 자연자원을 사용할 권리가 있는 오리히나리오의 강제노동을 피하기 위해서 포라스떼로가 되었고 몇 세대가 지나면 야나꼬나가 되기도 했다.¹²⁾ 그것은 포라스떼로와 야나꼬나 신분이 강제노동의 의무가 없기 때문이

12) 포라스떼로와 야나꼬나의 명확한 개념규정은 없다. 다만 포라스떼로는 오리히나리오와 비교하여 고향인 원주민공동체에서 토지와 자연자원 사용 권리를 포기한 원주민을 의미하고, 오리히나리오는 고향인 원주민공동체에서 거주하면서 원주민공동체의 토지와 자연자원 사용 권리를 보유한 원주민을 의미했다. 야나꼬나는 잉카제국 시대에 하인으로서 노예 신분과 비슷했고 스페인 식민시대에 자유인이 되었다. 야나꼬나는 자유노동자로서 힘든 노동인 광산노동보다는 덜 힘든 농장에서 봉건적 농노와 비슷했다. 이후에 도시가 많이 창설되면서 야나꼬나와 포라스떼로는 도시의 자유노동자라는 의미도 갖게 되었다. 어느 경우에는 포라스떼로가 도시자유노동자로서 야나꼬나가 되기도 했다.

었다. 고향을 떠난 포라스페로는 강제 노동자에서 자유노동자로서 불안정한 상태였지만 오리히나리오에서 포라스페로로 신분이 전환되면서 강제노동을 피할 수 있었고, 야나꼬나는 힘든 광산노동 보다는 스페인 지주의 아시엔다에서 일을 하거나 도시에서 노동력을 팔아서 생존할 수 있었다. 이에 이주와 노동력 판매 방식은 고향을 떠난 원주민이 첫 번째로 겪는 문화변용이었다. 두 번째 방식은 돈을 주고 강제노동을 면제받는 “팔뜨리께라”(Faltriquera 또는 Indios en Plata)가 되거나, 일부는 현금으로 지불하고 다른 일부는 노동으로 제공하는 “은과 노동”(Servicio en Plata) 방식을 취할 수 있었다. 그러나 두 번째 방식은 노동을 대신하는 전부 또는 일부를 현금으로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현금을 지불하는 방식은 주로 광산도시 인근에 사는 원주민들이 광산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공급하는 상업과 운송업에 종사함으로써 다른 지역 원주민보다 상대적으로 돈을 벌기가 용이했기 때문에 광산도시 인근의 원주민이 선택하는 방식이었다(Saignes 1985, 68-70). 세 번째 방식은 이러한 변화의 과정 속에서 결혼의 선택과 가족을 형성하는 것이었다. 이에 원주민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정체성 보다는 계급적 상황이 형성됨에 따라, 인종적·종족적 혼종성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오랫동안 지속되었고 불규칙적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혼혈인이 증가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혼혈인이 강제노동에서 면제되기 때문이었다(Zulawski 1995, 83-84). 즉 식민시대의 억압과 착취를 피하기 위해서 17세기에 볼리비아의 원주민은 이주전략을 통해 포라스페로와 야나꼬나 신분을 획득했고, 강제노동 대신에 현금을 지불하는 팔뜨리께라나 “은과 노동” 형태를 선택했으며, 18세기에는 결혼과 새로운 가족을 형성했다(Peñaloza 1981, 154; Zulawski 1995, 198).

식민시대의 강제노동과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 미따와 엔꼬미엔다에 반대하는

-
- 13) 원주민에 대한 잔인한 처우는 원주민의 강력한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라파스의 Túpac Amaru, 오루로(Oruro)의 Santos 또는 Atu Inca, 투쿠만(Tucumán)에서 Hualpa Inca, 띠따(Tinta)에서 José Gabriel Condorcanqui의 봉기가 발생했다. 차르카스(Charcas)에서 Los Catari의 봉기가 발생했고, 시꾸아니(Sicuaní)에서 Diego Cristobal의 Túpac Amaru 봉기가 발생했다. 이들 모두는 잉카의 후예임을 언급했고, 그들의 목적은 태양의 제국(잉카제국)을 재건하는 것이었다(Acosta 1959, 80).

원주민의 저항과 봉기가 17세기말에서 18세기까지 적어도 66회 발생했다.¹³⁾ 예를 들면, 1781년의 봉기는 꼬레히도르의 권력남용에 대한 일반적 불만의 축적이었다. 특히 상품 레빠르띠미엔토는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비싸게 사야 했다. 페루의 투팍 아마루(Túpac Amaru)가 엘리트적 특징의 원주민 봉기였다면, 볼리비아의 투팍 까타리(Túpac Catari)는 민중적인 특징의 원주민 봉기였다(Laura 2001, 25). 이처럼 원주민공화국과 스페인공화국이라고 부르던 두 개의 사회에는 적개심과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Keen 2009, 82). 이에 “두 개의 공화국”에서 스페인의 보존 및 확대와 관련된 것은 항상 원주민의 억압과 파괴를 의미했다(Simpson 1950, XVI).

III. 식민시대 볼리비아 노동체계의 특징

1. 포토시(Potosí)

1539년 지금의 볼리비아인 알토페루 지역을 스페인이 정복했다. 이후 1545년 포토시 은광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20여년이 지나면서 지표면에 있던 은 광석을 거의 다 채취했고, 이에 보다 깊은 갱도에서 광석을 채굴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생산비용이 증가했고 보다 많은 노동자가 필요하게 되었다. 다른 한편, 1570년 경 수은합금법(아말감)이 도입되면서 가열하여 은 광석을 녹인 후에 은을 추출하는 기존의 비싼 정련방식을 대체했다. 이에 생산비용이 감소하게 되었다. 또한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1573년 페루 부왕인 톨레도가 포토시를 방문하면서 미따를 창설했다. 이에 수은을 사용하는 새로운 은 추출 방식과 값싼 노동자인 원주민의 강제노동으로 인해 은 생산이 매우 증가했다. 이렇게 포토시에 미따가 시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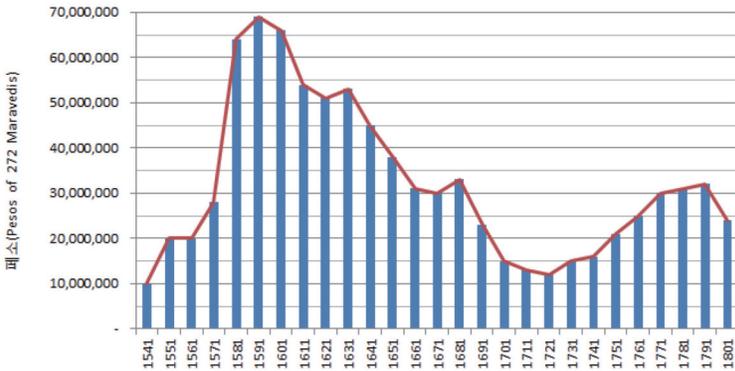
당시 포토시 광산에서 원주민을 강제로 노동시키려는 필요가 1560년대까지 발생하지 않았다. 미따가 시작되기 전에 포토시 광산에는 돈을 벌기 위해 원주민(야나코나)과 스페인 광산주가 이미 존재했다. 포토시에서 은 광산이 발견된 1년 후에 산 아래에 마을이 형성되었고 그곳에는 170명의 스페인인과 3천 명의 원주민이 살았다. 1547년 “Villa Imperial de Potosí”라는 이름으로 공

식적으로 행정체제가 창설되었고 1만4천명이 살고 있었다. 초기 은 생산의 모든 과정에서 원주민(야나코나)이 주도적이었다. 스페인의 정련방식은 고도가 높아서 사용할 수가 없었으나, 전통적인 원주민 방식으로서 구아이라(Guayra 원주민 풍로의 일종)를 사용하여 은을 추출하는 기술은 높은 품질의 은을 추출하는데 보다 적당했다. 당시 포토시에 온 대부분의 원주민은 야나코나였고, 야나코나는 스페인 광산주와 계약 하에서 개인적으로 일을 했다(Cole 1985, 3). 1560년대에 이르러 높은 순도의 은광이 바닥나기 시작했다. 광산의 갱도가 깊을수록 광석채굴에 필요한 노동력이 보다 많이 필요했으나 은 생산이 줄어들면서 많은 야나코나가 다른 일거리를 찾기 위해 포토시를 떠났다. 이에 스페인 광산주는 노동력 부족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때 다른 지역에서 흑인노예를 사용하게 되면서 포토시 광산주도 흑인노예를 생각했으나 결국 흑인노예를 사용하지 않게 되는데, 그것은 첫째, 흑인노예 수입비용을 충당할 만큼 당시 스페인 광산주의 재정적 여력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둘째, 비용이 최소화 된다고 하더라도, 브라질에서 흑인노예를 들여와야 하는데 당시 이러한 무역은 불법이었으며, 셋째, 포토시의 고도와 추운 날씨에 흑인노예가 육체적으로 견딜 수 없어서 광산에서 일하는 것이 어렵다고 평가했기 때문이다(Cole 1985,4).

이러한 상황에서 포토시의 미따는 1573년에 시작하게 되었고 1812년까지 약 250년 동안 지속되었던 제도였다. 초기에 포토시 미따는 싼 임금을 지불하는 미숙련 노동자를 제공함으로써 광산주에게 중요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일하기를 거부하는 원주민을 강제하는 수단이었다. 1570년대 포토시 미따가 시작되자 의무적으로 미따요를 보내야 하는 16개 주에서 사회와 인구의 변화가 발생했다. 이처럼 1570년대 강제징집 노동 제도인 미따와 수은합금법 도입으로 은 생산량이 1600년까지 증가하다가 1720년경에 은 생산량이 최저점에 이르렀다.

포토시 광산주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비용을 줄이고 미따요의 노동 강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첫째, 제도적으로 미따요의 숫자를 확대해 달라고 부왕

1541-1810년 동안의 포토시의 은 생산



〈그림 1〉 1541-1810 동안 포토시의 은 생산 (단위, 페소)

자료: Brown(2012, 17)

과 스페인 왕에게 자주 청원했다(Wiedner 1960, 370). 둘째, 미따요의 노동 강도를 높이기 위한 노동통제로서 노동시간에서 노동할당량(Tarea, Montón)으로 기준을 바꾸었다.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벌금을 물어야 했다(Crespo 2010, 141). 그래서 미따요는 고향에서 포토시에 올 때, 부인과 자녀들을 데리고 왔다. 왜냐하면 부인과 자녀들이 일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이다(Zulawski 1995, 70). 셋째, 강제노동자인 미따요는 자유노동자인 밉가(Minga)보다 적은 보수를 받았고, 그것은 생활비에도 못 미치는 보수였다. 1596년 포토시의 한 달 생활비는 26페소였지만 미따요는 한 달에 10페소를 받았다. 따라서 한 달에 16페소가 적자였다. 이에 미따요는 휴식기간에 휴식하지 못하고 자유노동자인 밉가가 되어서 생활비를 마련해야 했다(Bakewell 1984, 134). 일반적으로 미따요는 포토시에서 보수가 부족했기 때문에, 고향에서 포토시로 떠날 때, 집의 가축, 옥수수, 감자 등의 식량과 의복 및 약간의 돈을 가져갔다. 또한 고향의 원주민공동체도 미따요에게 약간의 경비를 지원했다. 넷째, 갠도에서 미따요가 일을 할 때, 초가 2개가 필요한데 광산주는 초를 1개만 제공했기 때문에, 부족한 초를 미따요 자신이 마련해야 했다(Wiedner 1960, 372). 다섯째, 미따요는 항상 생활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광산에 속한 상점에서 외상으로 생

필품을 샀다. 그래서 미따요 임금의 상당부분은 외상을 갚으면 남는 것이 별로 없었다. 일반적으로 미따요는 상점에서 코카 잎이나 치차, 술(Aguardiente)을 샀다. 코카 잎이나 주류는 도시의 2배 가격으로 판매되었다. 광산주는 직접 상점을 운영하지 않았지만, 상점을 설치할 수 있는 권리를 광산 감독자에게 허용했다. 자유노동자 모집과 미따요와 자유노동자의 임금지불을 책임진 광산 감독자는 상점으로부터 높은 이익을 올렸다(Tandeter 1981, 121). 여섯째, 광산주는 미따요가 고향에서 포토시로 올 때,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갈 때,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포토시에 오려면 어떤 미따요는 부인과 아이들과 함께, 약 500km를 걸어서 포토시에 왔고 약 1-2 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다. 이에 플레도 부왕은 5페소를 경비로 지불하도록 규정했으나, 실제로는 9페소의 경비가 필요했다. 이후에는 5페소의 경비도 지불하지 않았다(Crespo 2010, 65).

이에 강제노동 징집 제도인 미따를 피하기 위하여 원주민은 어떤 대응을 했을까? 미따는 광산노동 자체가 매우 어렵고 위험했을 뿐만 아니라,¹⁴⁾ 포토시가 먼 거리에 있고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 전통적인 노동을 그만두고 가정과 고향을 떠나야 했다. 그래서 강제노동인 미따를 피하기 위해서 첫째, 미따요는 일 년에 120페소를 광산주에게 주면, 미따를 면제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원주민을 팔뜨리께라라고 불렀다(또는 Indio en Plata)(Thierry 1985, 66). 둘째, 미따를 피하기 위한 방법은 도주였다(Karen 1975, 111-112). 도주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고향을 떠나 미따 의무가 면제된 14개 주(Provincia) 중에 아무 곳이나 이주하면 되는 것이었다. 미따요가 너무 힘들었고 위험했기 때문에 강제노동을 피하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도피한 원주민이 많았다. 이에 미따요를 제공해야 하는 지역에서 원주민 인구가 많이 감소했다. 이에 따라 미따 의무는 7년마다 한 번씩이었던 것이 6년에 한 번, 2년에 한

14) 식민시대 미따요가 처한 위험을 3개로 구분하면, 첫째, 광산 내부의 물리적인 상황에서 갱도의 붕괴와 침수에 의한 피해이다. 이것으로 수천의 미따요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둘째, 독성물질에 의한 피해이다. 광산 내부에서 부적합한 산소에 의해 폐와 신장에 영향을 주는 피해이다. 셋째, 광산 노동과 다르게 정련소 노동에서 피해이다. 일반적으로 납과 수은 중독에 의한 피해이다(Adolfo 1975, 89).

번, 어떤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으로 축소된 경우도 있었다. 이에 1620년경에 미따가 7년에 한 번에서 1년 또는 2년에 한 번으로 바뀌었고, 휴식기간도 2주일 휴식에서 1주일 휴식으로, 나중에는 1주일 휴식도 폐지했다. 셋째, 미따를 피하기 위한 방법은 야나꼬나가 되는 것이다. 미따 강제노동을 피하기 위한 원주민의 대응은 야나꼬나 자격으로 스페인인의 아시엔다에서 일하는 것이다. 야나꼬나는 미따가 면제되었고, 이들은 지주의 보호를 받았는데, 그것은 아시엔다 지주가 노동자를 빼앗기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했기 때문이다. 1659년경 포토시에 부재한 사람 가운데, 2천명 이상의 미따요가 다른 곳에 있었다. 예를 들면, 추꾸이토(Chucuito) 주의 미따 명부에는 1858명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147명밖에 없었다. 원주민 감소는 세금 징수에도 어려움을 주었다. 성인 남성은 1년에 7페소의 세금을 지불해야 했다. 이에 은 생산에 따른 세금인 킨프레알(Quinto Real 1/5세금) 보다 적은 세금을 징수할 수밖에 없었다(Crespo 2010, 69-73). 이렇게 미따에 대한 원주민의 대응으로 인해 알포페루 지역의 노동력 구성과 사회가 변모했다. 결론적으로 포토시 광산 지역은 미따요를 제공 받았으나, 미따 의무는 없었다. 주요한 산업은 광업이었고, 노동자 구성은 대부분이 강제노동자인 미따요가 대부분이었다. 정련소 주인인 아소게로(Azoguero)는 정부로부터 수은과 신용을 제공 받았다. 따라서 포토시 광산에서 자연적 요소와 정책적 요소가 노동체계에 보다 많은 영향을 주었다.

2. 오루로(Oruro)

오루로 지역에서 1606년에 은광이 발견되었다. 오루로는 알포페루 지역에서 포토시 다음으로 중요한 은광이었으며, 미따가 면제되는 지역이었다. 오루로는 3600-4000m의 고원지역에 위치해 있다. 고도가 높음에도 오루로 지역에 도시가 형성된 것은 중요한 광물자원이 많았기 때문이다(Gavira 2005, 24). 또한 오루로는 교통의 요지였다. 오루로는 라파스 남쪽 150km에 있고 포토시 광산에서 태평양 쪽의 아리카(Arica) 항구로 가는 중요한 도로였다. 아리카 항구에서 은을 리마로 운송했다. 육상도로로서 오루로의 가치는 리마로 가는 라

파스, 뿌노(Puno), 꾸스꼬와 연결되어 있었다. 오루로 지역은 1607년 약 6천 명의 성인 남성을 포함하여 1만8천명의 인구가 거주했다(Zulawski 1987, 408).

오루로는 포토시처럼 미파요가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광산주는 인근의 원주민 노동자를 모집했고 약간의 기술을 갖고 있는 원주민 노동자에게 하루에 1페소를 지불했다. 이것은 포토시 미파요가 받는 것의 2배였다. 이에 오루로에 자유롭게 이주해온 원주민은 더 이상 고향인 원주민공동체에 돌아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오루로 광산에서는 포토시 보다 높은 임금을 받았고, 광산에서 일하는 것이 포토시보다 용이했기 때문이다. 당시 포토시는 갱도가 어느 정도 깊이가 있다면 오루로는 당시 포토시보다 갱도가 깊지 않았다. 게다가 오루로가 교통의 요지라 고향에 가는 것이 용이했고, 특히 관습적으로 원주민 노동자가 갱도에서 광산주의 허락 하에 광석의 일부를 공유하는 것(Doblas, 또는 Corpas)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이 광석을 원주민 자신이 구아이라에 녹여서 은을 추출하여 이것을 판매하면 과외소득이 생겼다. 오루로 광산 초기에, 지표면에는 광석이 있어서 채취하기가 쉽고 품질도 좋은 은 광석이 상당히 있었다. 오루로와 포토시의 광산을 비교 요약하면,

많은 원주민이 오루로에 갔다. 왜냐하면, 오루로에 가면 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포토시 광산은 노동 강도가 과도하게 높았고, 처우도 좋지 않았으며, 광산도 위험하여 매일 사망자가 발생했다. 포토시 광산의 광석의 품질이 떨어졌고, 수익도 적었다. 반면, 오루로의 수입이 포토시의 수입보다 많았고, 그 수입을 집에 가지고 갈 수 있었다. 그밖에 원주민은 광산에서 마을까지 가깝기 때문에 매일 집에 돌아갈 수 있었고, 그러한 권리도 보유했다. 또한 생활비가 포토시보다 1/3-1/2정도 저렴했다.(Zulawski 1987, 411)

포토시와 다르게 오루로에는 부왕이 미파를 제공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오루로에 미파요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17세기 초에 다른 지역에서 광석이 풍부하지 않은 경우에 미파요를 비공식적으로 오루로로 보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1618년에 더 이상 미파요를 오루로 지역에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보내지 않았다. 이에 오루로 광산주는 기회가 될 때마다 오랫동안 부왕과 왕에게

미파요 제공을 요청했지만, 미파요가 제공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당시 오루로 지역보다 더 미파요가 필요한 지역이 있었고, 오루로에는 당시 1만 명 정도의 자유노동자(Minga)가 존재했기 때문이다(Gavira 2005, 33).

오루로에서 은의 안정적 생산은 약 30년 동안 지속되었다. 그러나 1630년 대부터 오루로 광산에서 수은 부족과 노동력 부족이 발생했다. 이것은 원주민이 인근에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일을 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들 대부분의 원주민은 인근의 원주민공동체와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던 포라스페로였고, 이들은 광업을 부수적으로 생각하면서 농업에 주로 종사하던 농민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농업 일정에 따라 여건이 허락될 때, 일시적인 형태로 광업에 종사하였기 때문에 노동력의 불안정성이 발생했다. 다른 한편, 오루로의 광산주는 수은과 관련하여 포토시 광산에 우호적인 식민당국의 태도에 불만을 갖고 있었다(Gavira 2005, 38). 왜냐하면 수은합금법으로 은을 생산하기 때문에 은 광업에는 우안까벨리카(Huancavélica)에서 생산되는 수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식민당국이 독점적으로 관리하는 우안까벨리카의 수은 배급에서 포토시에는 오루로보다 저렴한 가격에 충분히 제공했고, 신용으로도 구입이 가능했다. 그러나 오루로 광산주는 포토시 광산주보다 비싸게 수은을 구입해야 했고, 신용으로 수은을 구매하는 것도 제한 받았다.

오루로 광산은 정식으로 식민당국으로부터 한 번도 미파요를 받은 적이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루로 노동자의 특징은 강제노동자(미파요)가 아니라 자유노동자(밍가)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제도적 측면에서 오루로 지역에는 ‘주로’ 자유노동자가 존재했다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1620년대까지만 미파요가 존재했기 때문이다(Gavira 2005, 191). 오루로 지역의 자유노동자는 미파요와 비교할 때, 수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왜냐하면 자유노동자의 보수와 코르빠스(Corpas)로 인해 미파요 보다 훨씬 좋은 조건을 향유했다. 또한 오루로의 자유노동자는 노동량에 의해 보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간에 대해 보수를 받았다. 자유노동자인 밍가는 광산에서 얼마만큼 일을 하든지 간에

〈표 4〉 1638년 오루로 지역의 포라스페로와 야나꼬나의 직업분포

구 분	포라스페로		야나꼬나		전체	
	N	%	N	%	N	%
광업 및 관련업종	133	10	6	2	139	9
상업 및 운송업	159	13	69	24	228	15
수공업	181	14	86	30	267	17
행정 및 종교 관련업종	25	2	8	3	33	2
기타 업종	9	1	11	4	20	1
무응답자	768	60	105	37	873	56
전체	1,275	100	285	100	1,560	100

자료: Zulawski(1995, 122)

동일한 임금을 받았다. 반면, 미따요는 특정한 노동 할당량을 끝마쳤을 때 보수를 받았다. 오루로의 자유노동자는 특정 할당량을 초과할 때 일하는 것을 거부할 수도 있었다(Zulawski 1995, 94).

오루로 지역에 있는 포라스페로 남성의 반은 오루로 광산지역이나 광산지역 인근에서 태어났다. 게다가 오루로 지역에서 태어난 많은 포라스페로는 주로 오루로에서만 살았다. 이것은 오루로 지역으로 이주한 많은 포라스페로가 최근에 이주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전에 이주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오루로 지역의 포라스페로는 포토시의 미따 의무를 이행한 다음에 비교적 초기에 오루로 지역에 미따 의무를 피하기 위해 이주한 원주민이라 볼 수 있다. 이에 결혼과 가족형성으로 토지 접근이 가능했다(Zulawski 1995, 129). 오루로 지역의 포라스페로와 야나꼬나의 직업분포를 보면, 야나꼬나의 30%가 수공업에 종사하고 있고, 상업과 운송업에도 종사하고 있다. 자신을 야나꼬나라 했던 원주민은 주로 운송업에 종사했는데, 그것은 원주민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피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야나꼬나는 방적공, 재단사, 목수로서 일을 했는데, 이러한 직업은 자유롭게 야나꼬나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Zulawski 1995, 126-127).

오루로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야나꼬나는 포라스페로보다 더 문화변용이 높았다. 적어도 오루로의 야나꼬나는 원주민공동체와의 관계 또는 정착촌과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야나꼬나는 거주지와 직업에 기초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정체성은 멕시코 광산의 노동자 처럼 직업적 광부로서(임금노동자) 그들의 역할에 기초가 된 것은 아니었다. 오루로 지역에서 가장 많은 문화변용을 겪은 야나꼬나는 제조업 노동자가 아니라, 보다 많이 스페인 문화를 받아들이고 비싸고 우아한 옷을 입고 있는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보다 숙련된 기술을 가진 수공업자였다. 도시지역의 야나꼬나 사이에 사회적·가족적 관계는 그들의 경제적 전략에서 매우 중요했다. 왜냐하면 야나꼬나 수공업 길드는 특화된 수공업 야나꼬나의 후손들이었고, 이에 수공업 분야에서 생산의 오래된 전통은 시장경제 수요와 공존이 가능했기 때문이다(Zulawski 1995, 148). 결론적으로 오루로 지역의 노동체계 특징은 강제노동 의무 관점에서 미따가 면제된 지역이었다. 주요 산업은 광업과 농업으로서 노동자 구성은 소농과 광부였다. 주요 노동형태는 자유노동자였고 정부로부터 제한적으로 수은과 신용을 제공받았으며, 미따요는 공식적으로 제공받지 못했다. 따라서 오루로 광산지역에서 자연적, 정책적 요소가 노동체계에 영향을 끼쳤다.

3. 꼬차밤바(Cochabamba)와 빨라야빠스빠야(Pilaya y Paspaya)

꼬차밤바는 알토페루 지역에서 포토시 다음으로 큰 도시로서 식민시대 농업의 중심지였다(Gustavo 1975, 181). 꼬차밤바는 잉카시대에 중요한 옥수수 생산 지역이었고, 식민시대에는 안데스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옥수수와 밀 생산의 중심지로서 가장 중요한 농업 지역이었다(Larson 1998, 409). 고지대의 고원에 살던 많은 사람이 16-17세기에 걸쳐 저지대인 꼬차밤바 지역에 이주했다. 대부분의 포라스떼로는 스페인 지주의 아시엔다와 스페인인이 주로 사는 마을에 정착했으나, 일부는 원주민 마을에 정착했다.

이때 포라스떼로는 다른 사회적 신분을 가지고 원주민공동체 사회에 진입했는데, 원주민공동체의 지속적 생존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포라스떼로는 원주민공동체의 자연자원을 독점하는 오리히나리오에 종속되었다. 동시에 많은

〈표 5〉 꼬차밤바 1683-1786년 포라스페로 지역별 인구변화

지역	1683년 포라스페로(N)	1786년 포라스페로(N)
시삐시삐(Sipesipe)		
빠소(Passo)	711	837
띠끼빠야(Tiquipaya)		
따빠까리(Tapacari)	512	1.622
미스께(Mizque)		
토토라-아이킬레(Totora-Aiquile)	613	-
뽀꼬나(Pocona)		
전체	1.836	2.459

자료: Jackson(1994, 28)

포라스페로는 오리히나리오의 가족과 결혼했고, 이에 보다 완전하게 원주민 공동체에 통합되었다. 예를 들면, 1645년 시삐시삐(Sipesipe) 지역에 살고 있는 포라스페로의 41%가 자신의 종족이 아닌 다른 원주민과 결혼했다. 이에 포라스페로는 원주민공동체에 노동력을 제공했다. 그러나 포라스페로는 오리히나리오가 아니었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권리가 미약했고, 이에 스페인 지주의 토지 강탈에 취약하게 되었다(Jackson 1994, 29). 즉 17세기에 원주민공동체는 “토지등기”(Composición de Tierra) 제도에 따라 합법화된 강탈방식을 통해 토지를 상실했고 18세기에도 17세기와 같은 정도는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토지를 상실했다.

꼬차밤바 정복 이후 얼마동안 스페인인에게 토지는 별로 가치가 없었다. 그러나 이후 현금으로 전환될 수 있는 노동을 제공하는 엔꼬미엔다 권리를 희망했다. 법에 따라 세금으로서 노동을 제공하는 엔꼬미엔다는 부를 빠르게 축적할 수 있는 수단의 보장을 의미했다. 게다가 신분제적 식민사회에서 엔꼬미엔다 권리는 상당한 사회적 특권과 정치권력을 보장했다. 꼬차밤바에서 토지는 16-17세기에 충분했고 아시엔다는 80여개로 증가했다(Jackson 1994, 35). 이처럼 아시엔다가 확대되면서 꼬차밤바에서는 항상 노동력이 부족했다. 이에 과도한 강제노동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해 포토시에서 꼬차밤바로 이주한 포라스페로로부터 아시엔다에 필요한 노동력을 모집했다. 그러나 노동자가 충분히 공급되는 상태는 아니었다(Jackson 1994, 36). 이에 스페인 지주는 노동력

부족 때문에 포라스페로에게 노동임대보다 유리한 방식인 토지를 임대하는 방식으로 안정적인 노동력을 확보하고자 했고, 이러한 방식은 20세기까지 지속되었다.

꼬차밤바는 포토시의 식량창고 또는 중요한 식량공급지였다. 왜냐하면 꼬차밤바 지역은 농업에 적합한 조건과 중요한 시장과 인접했기 때문이었다. 포토시의 성장과 쇠퇴는 꼬차밤바의 경제적 확대와 감소로 작용했다.

16세기에 꼬차밤바는 옥수수과 밀로 유명했는데, 꼬차밤바의 옥수수와 밀은 포토시 은광으로 실려 갔다. 심지어 꼬차밤바는 알토페루에 있는 곡물창고 기능도 했기 때문에, 유통을 원활히 했고 유통기간을 단축시켰다. 꼬차밤바 지역은 고원지대에 있는 도시와 광산에 식량공급자로서 중요성도 갖고 있었다.(Jackson 1994, 39)

1650-1700년 동안에 포토시의 은 생산이 하락했고, 오루로의 은 생산도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게다가 1780년경 뚜빱 까따리 봉기로 인해 꼬차밤바의 토지가 못 쓰게 되었다. 또한 아시엔다 지주는 반란세력과 정부군에게 저장된 곡물을 빼앗겼고, 그 후에도 아시엔다 지주는 토지의 황폐화를 회복하지 못하면서 토지매매가 증가했다(Jackson 1994, 510). 이에 지주는 수확물 손실 없이 또는 추가적인 자본투자 없이 고정된 수익을 확보하는 것으로써 토지임대를 확대했다. 두 번째 전략은 전체 토지를 매매하거나 작은 토지로 분할해서 토지를 매매하는 것이었다. 이에 꼬차밤바의 포라스페로는 토지를 임대하는 소농으로 전환했다. 꼬차밤바 지역은 기본적으로 농지가 풍부한 편이면서 노동자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농민봉기와 2차 피해로 인해 지주의 영향력이 축소되면서 노동임대 보다는 소농이 증가했다.

꼬차밤바 지역의 노동체계를 요약하자면, 강제노동 징집 제도인 미따가 포토시에서 시작되면서 미따를 피하기 위해 많은 원주민이 꼬차밤바에 이주했다. 정복초기에 원주민공동체의 노동력은 토지보다 훨씬 가치가 있었으나, 포토시와 오루로 광산지역에서 옥수수(원주민의 주식)와 밀(스페인인의 주식) 수요가 증가하면서 토지의 가치가 증가했다. 이에 아시엔다가 확대되면서 노동

〈표 6〉 1725년 벨라야빠스빠야 남성 원주민

구 분	오리히나리오		포라스페로		야냐코나		전 체	
	N	%	N	%	N	%	N	%
어린이 0-14세	287	48	983	47	397	54	1,667	49
경제활동인구 15-49세	223	37	861	41	325	45	1,409	41
노인 50세 이상	88	15	240	12	9	1	337	10
	598	100	2,084	100	731	100	3,413	100

자료: Zulawski(1995, 189)

력이 부족했고, 미따를 피해 많은 원주민이 꼬차밤바에 이주하면서 이들을 고용했지만 노동공급이 충분하지는 않았다. 이에 꼬차밤바에서 주요한 노동형태는 농업에 종사하는 소농이었다. 미따의무는 있었지만, 미따요는 제공받지 못했다. 따라서 꼬차밤바 농업지역에서 자연적 요소와 역사적 요소가 노동체계에 영향을 보다 많이 미쳤다.

벨라야빠스빠야는 포토시와 인접한 저지대 농업지역이다. 잉카제국 시대에 오루로 근처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이 고원에서 재배할 수 없는 식량을 위해 저지대인 벨라야빠스빠야 북쪽에 있는 토지를 이용했다. 포토시 은광개발 이후 17세기 초 벨라야빠스빠야의 지주가 광산지역에 판매할 포도주를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토지는 가치 있는 상업적 소유권이 되었다. 오루로, 꼬차밤바처럼 벨라야빠스빠야도 강제노동 제도인 미따요를 받은 적이 없었다. 그러나 벨라야빠스빠야 지역은 미따가 면제되었다. 그것은 치리구아노 족에 대항하는 방어의 의미가 있었고, 식민당국은 이 지역의 원주민이 포토시에 강제로 동원된다면, 이 지역을 포기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Zulawski 1995, 172). 또한 이 지역은 식민정부가 실질적으로 봉건적 농노를 축소시키고 특정한 귀족의 출현을 우려해 야나꼬나를 배치했다는 장점이 있었다. 이것은 이 지역에 일정한 규모의 자유노동자가 존재했다는 의미이다(Zulawski, 1995, 170).

포토시가 성장하면서 벨라야빠스빠야의 포도와 포도주의 판매가 시작되었고, 이 지역의 토지가치가 상승했다. 이후 이 지역에 포라스페로가 오게 되었는데, 이들은 그들과 비슷한 원주민 이주자와 접촉했을 뿐만 아니라, 흑인과 물라토 노예와도 접촉했다. 다양한 인종과 종족 사이에 빈번한 접촉으로 이주

〈표 7〉 1646-1725 벨라야빠스빠야 성인 남성 원주민 변화

연도	오리히나리오		포라스페로		야나꼬나	
	N	%	N	%	N	%
1646	263		667		212	
1684	306	-6	1.001	+50	251	+18
1775	280	+16	1.082	+8	350	+39

자료: Jackson(1994, 179)

자의 많은 후손들 사이에 이종혼합과 문화변용이 발생했다. 이것은 원주민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사용한 방어적 전략 중의 하나였다(Zulawski 1995, 9).

1646-1725년 동안 이 지역으로 이주해 온 이주자는 알포페루에서 온 포라스페로였고 야나꼬나도 존재했다(Zulawski 1995, 176). 17세기 벨라야빠스빠야 지역에 상당한 흑인노예가 존재했다. 그러나 흑인노예는 페루 해안가처럼 중요하지 않았다. 1730년대 대부분의 포라스페로는 벨라야빠스빠야에서 태어났고 고향과 종족에 대해 관심이 없었다. 야나꼬나는 벨라야빠스빠야에서 점차적으로 아시엔다에 종속적인 농업노동자가 되었다. 벨라야빠스빠야 지주는 17-18세기 초에 꼬차밤바처럼 토지를 작게 분할하여 임대할 필요가 없었다. 왜냐하면 원주민 봉기 시에 벨라야빠스빠야 지역은 영향을 받지 않았고, 꼬차밤바처럼 식량생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토시의 곡물수요 감소로 영향을 받지 않았다. 게다가 포도주 생산지로서 벨라야빠스빠야 보다 포토시에 가까운 지역이 없었기 때문이다(Zulawski 1995, 60). 이에 벨라야빠스빠야 지주는 꼬차밤바 지주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다. 이에 벨라야빠스빠야 지주는 토지임대보다는 노동임대를 선호했다. 왜냐하면 노동임대가 토지임대보다 이익이 높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지역은 소농보다는 농업노동자가 보다 많이 존재했다. 즉 농민봉기와 2차 피해 등을 감안하더라도 토지가 충분하고 노동력이 부족하여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적은 지주는 노동임대보다는 토지임대를 할 수 밖에 없다. 이에 꼬차밤바 지역에서 주요한 노동자 구성은 소농이 중심이다. 반면 상대적으로 토지보다 노동력이 풍부하고 지주의 영향력이 큰 벨라야빠스빠야 지역에서는 농업노동자가 다수이다. 요약하자면 지주가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큰 지역에서는 소농보다는 농업노동자를 선호하는데, 지주 입

장에서 농업노동자가 보다 유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노동자가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큰 지역에서는 농업노동자 보다는 소농을 선호하는데, 노동자 입장에서 소농이 보다 유리하기 때문이다. 벨라야빠스빠야 노동체계를 요약하면, 이 지역은 미따가 면제된 지역이었지만 강제노동자인 미따요 지원은 없었다. 주요한 산업은 포도재배와 포도주 생산으로서 농업노동자가 주요한 노동형태로서 자유노동자였다. 따라서 벨라야빠스빠야 농업지역에서 자연적, 역사적, 정책적 요소가 노동체계에 영향을 미쳤다.

IV. 결론

스페인은 중상주의적 관점에서 강제노동 제도를 통해 신대륙의 노동력과 자원을 착취했다. 그러나 신대륙이 원주민은 스페인의 강제노동 제도를 피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다. 대표적으로 첫째, 일정한 돈을 지불하여 팔뜨리께라가 되어 미따를 면제받는 것이다. 둘째, 미따가 면제되는 14개 주(州)로 이주하는 것이다. 셋째, 포라스페로와 야나꼬나의 신분을 획득하여 미따를 면제받는 것이다. 넷째, 결혼과 가족구성을 통해 혼혈인이 되어 미따를 면제받는 것이다.

1646년 알포페루 지역의 노동자였던 남성 원주민 구성을 보면 포토시는 오리히나리오가 89%로서 주로 다른 지역에서 미따요로 온 원주민이 대부분이었고 포라스페로가 전무한데 당연히 포토시는 이주의 목적지가 아니었다. 오루로 지역도 오리히나리오가 86%로서 오루로 지역에서 태어난 원주민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오루로 지역은 광산과 농업으로 살아갈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지역이었음을 알 수 있다. 꼬차밤바 지역은 포라스페로가 68%로서 포토시 미따를 피하기 위한 원주민의 선호지역임을 알 수 있다. 이에 포라스페로가 볼리비아 평균의 3배가 넘었다. 이것은 꼬차밤바 지역에서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벨라야빠스빠야 지역은 미따가 면제되는 지역이라 포라스페로가 58%를 차지하고, 역사적인 이유

〈표 8〉 1646년 알토페루 지역의 성인 남성 원주민 구성

지역	오리히나리오		포라스페로		야냐코나		총 N
	N	%	N	%	N	%	
포토시	9.000	89	0	-	1.065	11	10.065
오루로	1.987	86	307	13	16	1	2.310
꼬차밤바	1.047	24	2.946	68	318	8	4.311
필리아파스파야	280	24	667	58	212	18	1.159
알토페루 전체	45.292	64	15.446	22	10.086	14	70.824

자료: Zulawski(1995, 82)(원래 자료를 본 논문의 목적에 따라 편집했음.)

〈표 9〉 식민시대 볼리비아 노동체계의 특징

구분	포토시	오루로	꼬차밤바	벨라야빠스빠야
강제노동 의무	미따 면제	미따 면제	미따 의무	미따 면제
주요 산업	광업	농업+광업	농업(곡물)	농업(포토재배)
노동자구성	광부	소농+광부	소농(토지임대)	농업노동자 (노동임대)
주요 노동형태	강제노동자	자유노동자	자유노동자	자유노동자
정부지원	정부지원	지원제약	-	-
강제노동자 제공 여부	미따요 제공	미따요 제공 무	미따요 제공 무	미따요 제공 무

로 인해 야나코나는 4개 지역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알토페루에서 강제노동 제도, 은광, 식민당국의 지원(수은, 신용지원), 농토의 비옥도, 원주민의 수, 스페인인의 수, 식민당국의 정책 등은 포토시, 오루로, 꼬차밤바, 벨라야빠스빠야 사회에 영향을 미쳤다. 포토시 지역은 알토페루 제일의 은광지역으로서 식민당국으로부터 미따면제, 미따요, 수은, 신용 지원을 받았다. 주요한 산업은 광업이고 강제노동자인 미따요가 중요한 노동력으로서 외지인이 대부분이었다. 오루로 지역은 제2의 은광지역으로서 식민당국으로부터 미따면제, 수은, 신용 등 제한적인 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오루로 지역이 미따가 면제되고 광부와 소농으로서 생존이 가능했기 때문에 오루로와 인근지역에서 태어난 오리히나리오가 대부분이었다. 꼬차밤바 지역은 포토시 미따를 피하기 위해 원주민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인데, 그것은 꼬차밤바 지역이 저지대이면서 곡창지대여서 고지대보다 자연환경이 보다 생활하기에 적합

〈표 10〉 식민시대 볼리비아 노동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

구분	포토시	오루로	꼬차밤바	벨라야빠스빠야
자연적 요소	○	○	○	○
역사적 요소			○	○
정책적 요소	○	○		○

했고 아시엔다에서 일을 구하기가 용이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원주민은 토지를 임대하는 소농이었다. 벨라야빠스빠야 지역은 저지대로서 미따가 면제되는 농업 지역이었기 때문에 미따의무가 있는 꼬차밤바에 비해 농업지역으로서 장점이 있었다. 이에 꼬차밤바 지역보다 못하지만 원주민이 벨라야빠스빠야 지역으로 이주했다. 벨라야빠스빠야는 상대적으로 지주가 안정적이어서 노동임대가 상대적으로 중요한 곳이고, 꼬차밤바는 상대적으로 지주의 영향력이 약해 토지임대가 많다. 즉 벨라야빠스빠야에는 상당한 포라스떼로가 소농으로서 보다는 농업노동자로서 포도주 농장에서 일을 했다.

결론적으로 포토시, 오루로, 꼬차밤바, 벨라야빠스빠야 지역 노동체계의 특징은 자연적(지형적, 지질적), 역사적, 정책적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포토시의 경우는 자연적, 정책적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포토시의 은광 발견이라는 자연적 요소와 미따요, 수은의 안정적 제공이라는 정책적 요소가 노동체계에 영향을 끼쳤다. 오루로의 경우에는 자연적, 정책적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오루로는 식민시대 볼리비아 지역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은광이었던 자연적 요소와 미따 면제 지역으로서 원주민 유입 요소 및 제한적인 수은·신용 제공의 정책적 요소가 노동체계에 영향을 끼쳤다. 꼬차밤바 경우에는 자연적, 역사적 요소에 영향을 받았다. 꼬차밤바는 비옥한 토지가 있는 지역으로서 역사적으로 1780년경 원주민 봉기와 2차 피해로 인해 지주세력이 약화되면서 노동자 구성에서 소농(토지임대)이 주요한 형태였다. 벨라야빠스빠야 경우에는 자연적, 역사적, 정책적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지리적으로 포토시 인근에 위치해 있고 포도재배에 적당한 자연적 요소를 갖고 있었다. 역사적으로 부왕령 변경 지역에 정복하지 못한 원주민이 존재하여 미따를 면제했다. 정책적으로 초기에 식민당국이 야나꼬나를 강제적으로 이주시키므로써 안정

적인 노동공급이 있었고 미파 면제로 노동유입이 가능했다. 이에 벨라야빠스빠야 지주세력은 꼬차밤바 지주세력보다 안정적이었다. 이에 소농보다는 농업노동자(노동임대)를 고용함으로써 꼬차밤바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이윤율을 유지할 수 있었다. 물론 꼬차밤바 지역의 이윤율은 벨라야빠스빠야 지역보다는 낮지만, 이윤량 자체는 벨라야빠스빠야 보다 많았다. 똑같은 농업 지역이지만 정책적, 역사적 차이로 인해 꼬차밤바 지역의 주요한 노동자는 소농이고 벨라야빠스빠야 지역은 농업노동자였다는 발견은 본 논문의 중요한 기여점이다.

다른 한편, 식민사회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스페인 왕실은 18세기에 부르봉 개혁을 실시했다. 부르봉 개혁의 핵심은 조세, 행정, 군사 분야에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부르봉 개혁은 적어도 식민시대 볼리비아 지역에서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스페인 식민행정은 재정 향상, 효율성 제고, 부패 근절을 위해 꼬레히도르의 임기를 7년에서 5년으로 축소했다. 이에 매관매직인 꼬레히도르는 예전에는 7년 동안에 투자를 회수할 수 있지만, 5년으로 투자회수 기간이 축소됨으로써 상품 레빠르띠미엔토를 과도하게 활용하면서 원주민의 원성을 샀다. 이에 1780년대 알토페루 지역에서 원주민의 봉기가 상당히 발생했고, 이후 알토페루 지역을 비롯하여 신대륙에서 스페인으로부터 독립 열망이 급증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대부분이 독립을 성취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스페인의 부르봉 개혁은 적어도 알토페루 지역에서 실패했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발견은 본 논문의 중요한 기여 중의 하나이다.

참고문헌

- 미놀로, 월터(2010), 『라틴아메리카, 만들어진 대륙』, 김은중 옮김, 그린비.
 Abecia, Valentín(1988), *Mitayos de Potosí: En una economía sumergida*, Barcelona: Hurope.
 Acosta, Hilarión(1959), “La encomienda y la mita a través de la historiografía moderna,”
Revista Municipal de Arte y Letras, Khana, No. 33-34, La Paz, pp. 69-80.

- Adolfo, Gustavo(1975), *La vida social en el coloniaje*, La Paz: Biblioteca del Sesquicentenario de la República.
- Bakewell, Peter(1984), *Miners of the red mountain: Indian labor in Potosí, 1545-1650*, Albuquerque: University of New Mexico Press.
- Brading, D.A. y Margarita Zaionz de Zilberay(1971), “Las minas de plata en el Perú y México colonial. Un estudio comparativo,” *Desarrollo Económico*, Vol. 11, No. 41, Instituto de Desarrollo Económico y Social, pp. 101-111.
- Brown, Kendall(2012), *A history of mining in Latin America*, Albuquerque: University of New Mexico Press.
- Centellas, Marco A.(2011), *Historia de Bolivia*, La Paz: Universidad Mayor de San Andrés.
- Cole, Jeffrey A.(1985), *The Potosi mita, 1573-1700*,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 Crespo, Alberto(2010), *Fragmentos de la patria: Doce estudios sobre la historia de Bolivia*, Bolivia: Plural.
- De Querejazu, Laura(2001), *Caciques, yanaconas y extravagantes. La sociedad colonial en Charcas XVI-XVIII*, Bolivia: Plural.
- Dollfus, Olivier(1982), “Development of land-use patterns in the central Andes,” *Mountain Research and Development*, Vol. 2, No. 1, International Mountain Society, pp. 39-48.
- Flores, Domingo(1967), “La Mita,” *Revista Municipal de Arte y Letras, Khana*, No. 39, pp.92-99.
- Gavira, María(2005), *Historia de una crisis: La minería en Oruro a fines del período colonial*, La Paz: Instituto de Estudios Bolivianos.
- Jackson, Robert(1994), *Regional markets and agrarian transformation in Bolivia: Cochabamba 1539-1960*, Albuquerque: University of New Mexico Press.
- Keen, Benjamin(2009), *A history of Latin America*, Houghton Mifflin, Boston.
- Larson, Brooke(1998), “Rural rhythms of class conflict in eighteenth-century Cochabamba,” *The Hispanic American Historical Review*, Vol. 60, No. 3, Duke University Press, pp. 407-430.
- Laura, María(2008), “Encomienda, trabajo y servidumbre indígena en Corrientes, Siglo XVII-XVIII,” Tesis de Maestría, Universidad Internacional de Andalucía.
- Moreno, Rene(1945), “La mita en Potosí,” *Kollasuyo: Revista de Estudios Bolivianos*, No. 62, pp. 155-161.
- Peñaloza, Luis(1981), *Nueva historia económica de Bolivia*, La Paz: Editorial Los Amigos

- del Libro.
- Saignes, Thierry(1985), "Notes on the regional contribution to the mita in Potosí in the early seventeenth century," *Bulletin of Latin American Research*, Vol. 4, No. 1, pp. 65-76.
- Simpson, Lesley Byrd(1950), *The encomienda in new Spain*,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Spalding, Karen(1975), "Hacienda-village relations in Adecan society to 1830," *Latin American Perspectives*, Vol. 2, No. 1, pp. 107-121.
- Tandeter, Enrique(1992), *Coacción y mercado. La minería de la plata en el Potosí colonial*, La Paz: Instituto de Estudios Bolivianos.
- Weeks, David(1947), "The agrarian system of the spanish american colonies," *The Journal of Land & Public Utility Economics*, Vol. 23, No. 2,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pp. 153-168.
- Whitten, Norman(2007), "The Longue Dureé of racial fixity and the transformative conjunctures of racial blending," *Journal of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Anthropology*, Vol. 12, No. 2, pp. 356-383.
- Wiedner, Donald(1960), "Forced labor in colonial Peru," *The Americas*, Vol. 16, No. 4, Academy of American Franciscan History, pp. 357-383.
- Yeager, Timoth J.(1995), "Encomienda or slavery? The spanish crown's choice of labor organization in sixteenth-century spanish America," *The Journal of Economic History*, Vol. 55, No. 4, pp. 842-859.
- Zulawski, Ann(1987), "Wages, ore sharing, and peasant agriculture: Labor in Oruro's silver mines(1607-1720)," *The Hispanic American Historical Review*, Vol. 67, No. 3, Duke University Press, pp. 405-430.
- Zulawski, Ann(1995), *They eat from their labor: Work and social change in colonial Bolivia*, Pittsburgh: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김 달 관

서울대학교
mundodk@hanmail.net

논문투고일: 2013년 7월 11일

심사완료일: 2013년 8월 7일

게재확정일: 2013년 8월 14일

Society and labor system in colonial Bolivia

Dal-Kwan Kim

Seoul National University

Kim, Dal-Kwan (2013), Society and labor system in colonial Bolivia.

Abstract From the Columbus' journey in 1492 the empire has established its power matrix in the New World through the confiscation of land, exploitation of labor, manipulation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the appropriation of knowledge and subjectivity. The empire has endeavored to intensify its dominance by adapting to new challenges which include evangelization, civilization, modernization and globalization. This article aims to comprehend how Spanish forced labor systems transformed the labor relations of colonial Bolivia. It also inquires how native people in Bolivia confronted to such changes. Specifically, this article examines encomienda and mita system in Potosi, Oruro, Cochabamba, and Pilaya y Paspay. In chapter 2, this article concentrates on analyzing encomienda and mita of colonial Bolivia. In chapter 3, it examines labor systems of colonial Bolivia in general. In chapter 4, this article concludes by discussing the impact and implications of colonial labor system in the colonial Bolivian society.

Key words Bolivia, Encomienda, Mita, Repartimiento, Potosí.